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159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6년 7월 13일(월) 12:00

□ 장 소 : 송셰프(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74-4번지)

□ 참석 이사 : 재적이사 7인 중 5인, 감사 2인 중 2인 참석

· 참석 이사 - 정종문, 김동범, 김정열, 허영진, 김동호(이상 5인)

· 불참 이사 - 한명섭, 엄종숙(이상 2인)

· 참석 감사 - 김대현, 한택근(이상 2인)

개회정족수 확인과 개회선언

의장인 대표이사 정종문은 상임이사 김동호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고, 상임이사는 재적이사 7인 중 이사 5인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제159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개회시간 12:10).

보고안건 제1호: 제158차 이사회 결과보고

의장은 제1호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를 상임이사에게 요청하다.
상임이사가 제1호 안건에 대해 보고자료대로 보고하다.

의장은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묻다. 다른 의견이 없자, 보고안건 1호의 승인을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보고안건 1호가 보고내용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의결안건 제1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임명 건

의장은 상임이사에게 의결안건 제1호의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상임이사는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관장 공모를 실시했고, 외부 3인, 내부 2인으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의 전형 결과 두 명의 후보자가 추천(1순위 서혜미, 2순위 [illegible]) 되었음을 보고하다.

김정열 이사는 추가적으로 감안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추천한 서혜미 후보를 관장으로 임명하자고 하다. 의장은 두 후보자의 장단점이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하다. 허영진 이사는 두 후보의 장단점이 있어 보이나, 면접심사위원회의 우열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하다. 김동범 이사는 면접심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고, 객관적인 평가점수에 의한 결정이었으니 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다.

의장은, 충분히 의견 개진이 있었으니, 의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다. 김정열 이사가 서혜미 후보의 관장 임명을 동의하다. 허영진 이사와 김동범 이사가 제창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다른 의견이 없자, 서혜미 후보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할지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의결안건 제1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임명 건으로, 서혜미 후보를 공고된 바에 따라 2026년 7월 14일부터 2년 임기로 임명함을 선언하다.

기타 안건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있는지 물어, 모든 이사가 의견 없음을 말하다.
다른 의견이 없자, 의장이 폐회 동의를 구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참석한 이사에게 감사를 표한 후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159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폐회시간 12:50)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들은 날인하다.

2026. 7. 13.

대표이사 정 종 문 (인)

이사 김 동 범 (인)

이사 김 정 열 (인)

이사 허 영 진 (인)

이사 김 동 호 (인)

감사 김 대 현 (인)

감사 한 택 근 (인)